

# 2023 국악창작곡개발

## '제17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' 1차 예선 심사결과

### □ 심사 개요

- 심사명 : <2023 국악창작곡개발-제17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> 1차 예선 심사
- 심사일시 : 2023년 5월 3일(수), 9:00~15:00
- 심사장소 : 국악방송 대회의실
- 심사위원 (※ 가나다순)

번호	이름	주요 프로필
1	김서령 (심사위원장)	-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공동 예술청장 - EO Creative 공동대표 - 공연과 축제 독립 프로듀서
2	신창렬	- '21-'23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예술감독 - 창작국악그룹 그림(The林) 대표 - 국악, 뮤지컬음악, 창극 등 다수 작곡
3	안정아	-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- '2020 KBS국악대상 가악상' - '09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수상
4	천지윤	-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- <천지윤의 해금 : 잊었던 마음 그리고 편지> 외 음반·음원 7종 발매 - 이화여자대학교,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
5	최덕렬	-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졸업 - '07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수상(불세출) - '09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작곡부문 금상

### ○ 심사항목

심사항목	배점(100점)	심사기준
대중성	30점	- 동시대성의 확보 및 대중 친화도
음악의 완성도	30점	- 노래곡, 연주곡별 구성의 완성도가 높은 곡
독창성과 창의성	20점	-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
국악적 요소의 반영	20점	- 국악어법(선율과 장단)이 살아 있는 곡

## □ 심사 결과

○ 심사결과 : 총 20팀 선정 (노래곡 9팀, 연주곡 11팀) (\*접수번호순 표기)

접수번호	팀명	참가곡명	장르구분
4	우리음연구소	도깨비	노래곡
6	EEum	Future Space	연주곡
7	정간井間을 버리다	마당을 나온 고양이	연주곡
9	민요팩토리	잇꽃	노래곡
18	FROM310	항해	연주곡
19	Scene(씬)	너울; 超	연주곡
25	풍류공작소	나리소서	연주곡
27	국악창작양상블RC9	KARMA(業)	노래곡
36	퓨전국악 아리수	비트박스 별주부(BBB) 토끼 잡아들였소	노래곡
37	시작(詩作)	새벽	노래곡
45	TIMY	System	노래곡
47	興 spirit (흥얼)	나비	노래곡
48	해금그루브	수라간	연주곡
49	공상명월(空想明月)	순라꼭질	연주곡
52	누룽지	실크로드	연주곡
53	옴브레스	불이과	연주곡
55	음악그룹:연줄	환영 (幻影)	노래곡
62	드오 De O	일렁	연주곡
66	음악그룹 Om	Silk Road	노래곡
70	SINAVI	Six Samul	연주곡

※ 대회운영지침 제18조 3항 “예선 및 본선 심사결과 발표 후라 하더라도 음반, 공연, 방송 등에 발표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”에 근거하여 선정된 작품이 추후 대회운영지침 [별지5-1]에 기준하여 ‘발표곡’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주요 심사평 (※가나다순)

심사위원	심사평
김서령 (심사위원장)	<p>동시대 한국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전통음악의 다양한 실험과 현대화 대중화에 기여해온 21c한국음악프로젝트가 올해로 17회를 맞이하였다. 그 간 본 무대를 통해 많은 국악창작곡이 탄생하고 역량 있는 아티스트와 단체가 배출되어 왔지만 역사가 깊어지면서 정형화된 21c 스타일이 만들어졌고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심의에서는 멘토링을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음악적 경향을 가진 팀들을 선정하였으며, 팀 지원보다는 창작곡 개발과 독창성, 곡의 완성도에 중점을 두었다. 출품작 연주 시간이 노래곡 5분 이내, 연주곡 7분 이내로 제한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자율성을 창작자에게 열어두어 더욱 과감한 음악들이 탄생될 수 있기를 바란다.멘토링과 2차 실연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한 연주자들의 무대를 기대해본다.</p>
신창렬	<p>동시대 정서와 표현을 통해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젊은 음악 창작자들의 도전과 용기를 볼 수 있었던 1차 예선이였다.</p> <p>전통 보컬 앙상블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팀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전통악기 연주역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균형감을 들려주는 연주 앙상블도 눈에 띄었다.</p> <p>아직 대중성의 눈높이에서 확장된 실험적인 형태의 음악들은 다소 적은 아쉬움과 사운드MR과 작곡자의 악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듯한 음악들도 눈에 띄었으나 본선 진출까지의 음악적 성장과 과정에 중심을 두고 그 가능성에 기대하며 심사 및 평가하였다.</p>
안정아	<p>대회에 참가하는 개인 및 팀의 음악을 통해 각각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며 창작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</p> <p>현재까지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통 악곡을 기반으로 한 밴드 구성, 반주 악기 선율의 대중음악적 편곡의 방향성도 당연하게 많이 보였으며, 전자 음향 및 가상악기 등을 활용한 음악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대중적 음악 트렌드가 많이 반영된 듯합니다.</p> <p>'정가' 기반 보컬이 비교적 많아져, 전통 성악 장르로 구별 없이 관심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.</p> <p>실연 심사로 이어질 연주까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곡들도 있었습니다.</p>
천지윤	<p>전반적으로 참가팀의 구성이 성악과 밴드음악으로 획일화된 경향이 느껴졌다.</p> <p>공연 활동과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경험과 연륜이 느껴지는, 성장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팀과 더불어 기존 국악계 흐름에서 차별화된 신선한 악기 구성과 음악적 전개가 두드러지는 팀을 선별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.</p> <p>음악적인 테크닉, 팀워크와 더불어 팀의 철학과 컨셉에 대해 보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관객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. 성악을 중심으로 한 밴드음악 외에도 기악의 가능성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갈 수 있는 음악가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탐구 정신을 가진 팀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.</p>
최덕렬	<p>대중성을 지향하는 창작국악에서 흔히 편성돼오지 않던 거문고, 산조아쟁, 철현금 등의 악기들이 한층 더 빈번히 눈에 띄어 반가웠습니다. 한편 기존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수상 곡의 전형성 및 경연프로그램(방송)의 경향에 의존하는 음악들이 적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대중성과 독창성만을 놓고 저울질 하기보다는 음악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면 더 오래도록 살아남을 21C의 한국음악이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.</p>

□ 향후 일정

구분	일시 및 장소	비고
<p><b>2차 예선 진출팀 대상 '오리엔테이션' 진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차 예선 안내 및 2차 예선 경연 순서 추첨</li> <li>- 예술감독 팀별 피드백</li> <li>- 2차 예선 기술협의회서 작성 안내 등</li> </ul>	<p><b>5월 10일(수)</b>, 14:00~18:00 / 국악방송 공개홀 (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, DMS빌딩 12층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팀 대표 또는 작곡가 1-2명 참석 (대기 공간이 협소하므로 팀별 1-2명 참석으로 제한)</li> <li>- 팀별로 지정된 시간에 도착, 대기 후 오리엔테이션 진행 (팀별 도착 요청시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)</li> </ul>
<p><b>2차 예선 (실연심사)</b></p>	<p><b>6월 10일(토)</b> / 국악방송 공개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차 예선 오리엔테이션 시 추첨한 경연순서에 따라 추후 경연 시작 시간 배정 예정</li> </ul>

□ 문의처

-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담당자 02-300-9973 / [21cproject@igbf.kr](mailto:21cproject@igbf.kr)